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성령 제목 : 성령으로 충만하길 간구하자 성경: 이사야 11장 1-9장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11:1-9)

성령으로 충만하길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깊이 있게 관심하신 주제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아직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아서 예수님은 가르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제자들은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쳐도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었다.

그래도 희망이 있었으니 그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순간 까지도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성령은 꼭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종교인이 되고,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율법주의의 늪에 빠지게 되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자에 불과하다.

성령을 받아야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진다. 하나님은 무궁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과 지식과 지혜를 부어 주신다. 성령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말씀하시고 감동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하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한국 사람들, 한국교회가 성령 받기를 소망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를 닮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저주를 끊게 되었고, 사람답게 살게 되었고, 문화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시절은 그리 길지 않았다. 점점 성령의 불이 약해져 갔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교회들을 예로 들고, 미국의 교회들을 예로 들면서 서구의 교회들이 성령의 불이 식어져 갔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그런 예상은 잘못된 것이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는 그런 길을 걷지 않아야 하겠다고 다짐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연구하면서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

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 한국교회는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 우리는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더욱 분발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세속적으로 성공해야만 가능한 사명이 아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헌실할 일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1 이새의 즐거에서 한 짝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지혜가 무궁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다. 결코 우리를 모른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2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특히 예수님께 먼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자!
예수님께 성령이 강림하시었다. 그래서 그토록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내시고 승리하신 것이다.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님은

1.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다.
2.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다.
3.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지혜와 총명의 영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된다. 예수님은 말에서 밀리거나 막히신 적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였지만, 한결같이 부끄러워하며 물러갔다.

예수님은 거침이 없으셨으나, 친절하셨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

고, 욕을 하지 않으셨고, 거짓을 사용하지거나 궤변을 늘어놓지 않으셨다. 그것은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의 능력, 돌파의 능력이 지혜에 있다.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도록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노력과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직 지혜와 총명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 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와 총명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한다.

둘째로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특히 모략이란 전략을 의미한다. 이겨야 할 상황에서는 모략이 필요하다. 게임을 한다든지, 경기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선점해야 한다든지, 싸워야 한다든지,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든지 모든 경쟁상황에는 모략이 필요하다. 모략이란 이기는 전략을 말한다. 저서는 안된다. 이겨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 최소한 지더라도 손해는 나지 말아야 한다. 왜 이겨야 하는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일만으로 싸우러 오는 저 이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산해 보아야 한다. 모략을 짜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승산이 없다면 빨리 백기를 드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는 상황이라면 덜 손해나는 것이 승리이기 때문이다.

(진짜 실패는 졌다고 낙심하는 것. 포기하는 것. 화김에 저지르는 것 등이다.)

모략과 재능은 좋은 짝이다. 재능은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가장 잘해내는 것으로 직업을 삼아야 한다. 노래를 제일 잘하고, 장사는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불러야 지 장사를 하면 재능에서 밀려서 성공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장사하

는 것은 노래를 부르기 위함이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략과 재능이 충만하다는 뜻이다. 오늘 우리도 모략과 재능이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세 번째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이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식활동이 왕성하다.

우리에게 지식이란 거짓이 없고 진실된 정보를 말한다. 진정한 지식은 진리가 지식이고 거짓은 지식이 아니다. 진실한 지식인 것처럼 위장한 거짓 정보가 많다. 그런데 지식이란 결국에는 그 지식을 습득하는자에게만 의미가 있고, 그 지식으로 어떤 지혜를 개발해 내느냐에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지식의 가치는 결국 그 지식을 습득하는 자의 의도와 맞물려 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인의 의도에서 선과 악이 갈린다. 똑같은 정보라도 누가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갈린다. 고급 지식을 가진자들 중에도 사기꾼들은 많다. 어떤 지식이든 그 지식을 선하게 사용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면 그는 지식을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단짝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식으로 악을 행하게 된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모든 지식의 주인이심을 알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한국교회가 성령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정작은 성령운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사실은 인격적인 성숙에만 집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을 닮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우쳐야 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닮게 되면 유교식으로 군자가 되는 것으로 여겨온 경향이 짙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고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실은 그보다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더 크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

4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많지만, 그 모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가난한자를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부자라고 예외일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아주 가난한 자에게라도 세심하고 공정하게 대우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사람이 가난하게 된다는지, 아프게 된다는지, 장애가 있다는지 하면 그는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선한 마음을 품기도 어려워진다. 더 약해지기 쉽고, 더 타락하기 쉽다. 그래서 가난해진다는지, 아프다는지, 장애를 입게 되면 그는 더욱 경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가 그 위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공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다. 정의로운 일을 하고 일한 만큼 벌며, 일확천

금을 노리지 않으며, 성실하며 일하며 받는 돈을 죽한 줄로 여기며 더 근검절약하며, 저축하고, 더 어려운 자들을 배려해야 한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한 자이며,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며 복을 예비하신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 겸손이란 덕목 가운데 가장 소중한 덕목이며 덕목중의 뿌리와 같다. 겸손이란 모든 덕목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그 기초가 정직한지를 판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사람들이 겸손한 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겸손한 척을 하고, 공손할수록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일삼아 공손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손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공손하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그 겸손이 정직한 겸손인지를 판단하신다. 돈을 벌려고 겸손한 것인지(욕심 때문에 공손한 것인지.), 정직하면서도 겸손한 것인지를 판단하신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도 겸손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가 겸손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겸손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해서 어떤 종류의 유익을 얻으려고 겸손한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의 막대기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뜻이다. 바야흐로 요즘에 이르러서 정치인들이 전쟁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보다는 말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한다. 아직 전쟁도구까지 사라지지 않는다고, 여전히 국지전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말’로 한다.

그런데 그런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기는 진리이다. 진리와 거짓의 전쟁에서 예수님은 되도록 사람이 다치지 않고 거짓이 굴복하는 방법을 선택하신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세상의 악이 소멸되고, 악인들이 복음을 받음으로 부끄러움을 이기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다.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이기도록 하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할 때 사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얼굴에 철판을 깐다. 오직 복음만이 부끄러움을 이긴다.

그리고 공의와 성실로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한다. 아멘.

6-9절까지는 마침내 이런 평화로운 나라가 오게 될 때까지 결코 공의와 성실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찬양예배>

주제: 교회 제목: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58절

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전 15:50-58)

주의 일이란?

1.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이란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전도

-경건한 삶이 더욱 풍성하고 가치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경건한 삶의 중심.

2.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 직장에서 일을 구원하는 것.
- 직장에서 정의와 성실로 일하는 것.
- 직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하는 것.
-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

3. 주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

- 어떻게 해서든지 총회를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개인적 선교는 나쁘다.

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 우리가 받아야 하는 유업은 영원한 유업이다.
- 우리가 세속적인 일을 하는 목적은 세속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원한 유업을 받는 것.
- 세속적인 부흥과 영원한 유업을 받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지 말라!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 영생에 관한 말씀.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 결코 썩을 것이라도 그것을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 그리고 결국 그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는다. 변화한다.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

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는 것(이루는 것)

-이것이 승리.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전15:50-58)

-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려면?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으면서 주의 일에 힘쓰려면?

-항상 그러하려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려면?

-그러려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홀로 잘하는 것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같이 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더욱 큰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내가 정치에 힘쓰지 아니하면 악한 자들이 정치를 장악하고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